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WSJ: 작년 미 GDP 2.5% 성장
- WSJ: 연준 금리 유지, 지금은 관망할 때
- Bloomberg: 파월 “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”
- Reuters: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은 예상보다 줄었지만...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주식 상승세... 견조한 GDP와 기술주 실적 발표에
- NYT: 연준과 달리 유럽은행은 5번째 금리 인하

[에너지]

- Bloomberg: 트럼프 정부와 달리 중국은 기후 전환에 투자한다
- Bloomberg: 트럼프의 관세 정책, 미국산 가스 수출 키운다

[인공지능]

- WSJ: MS와 메타의 AI 투자 불구, 엔비디아 수요 못 채워
- WSJ: 소프트뱅크, OpenAI에 250억불 투자

[자동차]

- WSJ: 토요타, 2024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
- WSJ: 테슬라, 4분기 자동차 판매 부진... 전체 매출은 증가
- Bloomberg: 혼다와 닛산, 2024년 판매량 감소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H&M, 연휴 시즌 판매 부진
- WSJ: Levi, 도매 성장률 회복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WSJ: U.S. GDP Grew 2.5% in 2024

작년 미 GDP 2.5% 성장

- 작년 4분기에 견조한 노동 시장으로 소비자 지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미 경제가 올해 강한 기초에서 출발하고 있다.
- 오늘 연방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 규모를 보여주는 미 GDP가 2.5% 상승했다. 전년도의 3.2% 보다 약하지만 여전히 견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.
- 또한 2024년 총생산량을 2023년 총생산량과 비교하면 2.8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WSJ 기사

WSJ: Fed Stands Pat on Rates, Entering New Wait-and-See Phase 연준 금리 유지, 지금은 관망할 때

- 어제 수요일, 연준이 1월 회의 결과 금리를 4.3% 범위로 유지하기로 했다. 지금은 금리를 지켜봐야 하는 단계라는 것이다.
- 파월 연준 의장은 “작년만큼 금리 인하가 급하게 필요하지 않다. 정책을 서둘러 조정할 필요는 없다. 물가 상승률이 계속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.”라고 말했다.
- 12월 연준 회의에선 물가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면 2025년에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었다.
- Richard Clarida 전 연준 부의장은 “12월 연준 회의의 목표는 금리 관련 조치를 천천히 취해도 되는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었으며, 목표를 달성했다.”라고 말했다.
- 다만,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2% 목표만큼 둔화될지, 금리 등의 여건이 경제 활동을 얼마나 제약하고 있는지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.
- Clarida는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이대로 이어지면 봄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Powell Says Fed Doesn't Need to Be in a Hurry to Lower Rates

파월 “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”

- 파월 연준 의장은 1월 회의 결과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. 즉, 금리를 4.25%~4.5% 범위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.
- 파월은 어제 금리 동결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“경제는 여전히 강하고, 금리가 이전만큼 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. 지금은 작년 금리 인하 이후 물가 상승률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춰야 할 때다.”라고 말했다.
- 또한 이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, 관세, 세금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시간도 얻을 수 있게 됐다.
-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다고 말하며, 2%대 목표 진전을 이루었다는 발표 내용은 삭제했다.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됐고, 노동 시장은 견조하다고 밝혔다.
- 파월은 다음 회의인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도 “서두르지 않을 것이다. 물가 상승률 둔화를 보여주는 연속적인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.”라고 답했다.

Bloomberg 기사

Reuters: US weekly jobless claims decline more than expected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은 예상보다 줄었지만...

-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이 예상보다 낮아 비록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찾기 쉽지 않지만, 해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1월 25일 끝나는 주에 실업 청구건수는 계절 조정치로 1만6천개가 줄어든 20만7천건을 기록했다. 당초 예상인 22만 건보다 낮은 수치다.
- 그러나 해고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. 컨퍼런스 보드의 이번 주 조사에 따르면 1월에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답한 미국인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.
- 반면, 일자리 찾기 힘들다는 비율은 지난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.

Reuters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Stocks Up After Solid GDP as Tech Earnings Roll In: Markets Wrap

주식 상승세...건조한 GDP와 기술주 실적 발표에

- 미국 경제 성장이 건조하다는 발표로 앞날의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식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- S&P 500종목 중 410개 종목은 테슬라와 메타 플랫폼, IBM 등 대형주의 낙관적인 전망으로 상승세를 보였다. 일부 전문가들은 강한 경제와 기업 수익의 강한 상관관계로 위험 자산이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.
-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분기에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 성장이 더딜 것으로 발표한 후에 주가가 떨어졌다.
- 투자자들은 오늘 장 마감 직후의 애플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. 매출 전망의 하락에 따라 UPS는 13% 떨어졌다.
- S&P 500은 0.26% 상승 중이고 나스닥은 0.1%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NYT: Diverging From the Fed, E.C.B. Cuts Interest Rates as Growth Stagnates

연준과 달리 유럽은행은 5번째 금리 인하

- 어제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으나, 오늘 유럽은행은 금리를 낮추었다. 지난해 여름 이후 5번째 금리를 인하했다. 이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.
- 유럽은행 정책 결정자들은 인플레이가 2% 목표치에 접근하면서 금리를 0.25% 낮추었다. 현재 기준 금리는 2.75%이다.
- 유럽 연합은 디스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며 인플레이가 목표치를 중심으로 계속 안정될 것이라는 신호가 있다고 밝혔다.
- 연간 유럽존 인플레이는 지난 12월에 2.4%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그 전달보다 약간 높았다.

NYT 기사

[에너지]

Bloomberg: What Trump's Anti-Climate Moves Mean for the Global Energy Transition

트럼프 정부와 달리 중국은 기후 전환에 투자한다

-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미국은 파리 기후협정에서 두 번째 탈퇴했다. 2017년도 탈퇴와는 달리 이번 탈퇴는 여파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.
- 이같이 미국이 기후 변화 리더십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클린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커지고 있다.
- BloombergNEF에 따르면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전환 투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다. 이 같은 성장 폭의 3분의 2는 중국이 주도했다.
- 이 기관 발표자는 중국은 작년에 에너지 전환에 8천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다. 이는 유럽과 미국, 영국의 합친 투자액보다 많았다. 이 같은 상황은 전례 없는 일이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Specter of Trump Tariffs Spurs Interest in US Gas Contracts

트럼프의 관세 정책, 미국산 가스 수출 키운다

-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렛대로 천연가스 수출을 이용하는 전략이 초기 단계에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.
-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, 쿠웨이트, 일본 등의 국가 관리와 에너지 관계자들은 더 많은 미국 가스를 조달받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.
- 트럼프는 유럽에 미국산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. 한국과 베트남 등 구매국들은 관세 여파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천연가스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.

-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다. 트럼프가 중국이나 LNG 수입을 주저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트럼프는 이들 국가들이 미국 생산업체들로부터 구매를 가로막게 하는 셈이다.
-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에 관세 부과와 LNG 구매를 연결시키는 것은 시장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.
- 관세 부과를 통해 LNG에 대한 경쟁적인 가격에서 정치적인 무역 관행을 일으켜 장기적인 시장 신뢰도를 해친다는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[인공지능]

WSJ: Microsoft and Meta AI Splurge Still Not Enough for Nvidia MS와 메타의 AI 투자 불구, 엔비디아 수요 못 채워

-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이 작년 4분기에 374억 달러를 AI에 투자했다. 이는 전년도 동기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전문가들 예상치를 초과한 것이다.
- 이 같은 투자는 AI 생성 서비스를 위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투자로 향하는 금액이다.
- 이는 AI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에 희소식이다. 그러나 중국의 AI 스타트업 업체가 효율적으로 컴퓨팅 수요를 생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엔비디아의 주식은 크게 하락했다.
- 향후에 엔비디아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.

WSJ 기사

WSJ: SoftBank in Talks to Invest as Much as \$25 Billion in OpenAI 소프트뱅크, OpenAI에 250억불 투자

- 소프트뱅크가 OpenAI에 150억~250억 달러를 투자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. 소프트뱅크는 지난주 백악관에서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었다.
- 투자가 실제로 이뤄지면 소프트뱅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OpenAI의 최대 투자자가 된다.
-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OpenAI에 14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, 먼저 투자한 만큼 OpenAI의 영리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뱅크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.

- 하지만 Open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년 동안 충분한 클라우드 용량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.
- 마이크로소프트 CEO Satya Nadella는 어제 수요일, “OpenAI와의 관계에 만족한다. 하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회사의 투자 대상은 OpenAI만 있는 것이 아니다. 우리는 다양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

WSJ 기사

[자동차]**WSJ: Toyota Remains World's Top Automaker Despite Selling Fewer Cars in 2024****토요타, 2024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**

- 토요타가 2024년 1천8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해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업체 지위를 유지했다. 2023년 1천1백20만 대 판매에 비해선 3.7% 감소한 수치다.
- 토요타는 올해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했다고 밝혔다. 다른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.
-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차를 메인 모델로 판매하고 있다. 올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차로 이동하면서 토요타는 자동차 시장에서 유리한 상황에 놓였다.

WSJ 기사

WSJ: Tesla Caps Roller-Coaster Year With Mixed Fourth-Quarter Earnings**테슬라, 4분기 자동차 판매 부진... 전체 매출은 증가**

- 테슬라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모두 있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. 테슬라는 영업 마진이 2023년 4분기 8.2%에서 6.2%로 감소하고 자동차 수익이 8% 줄었다고 밝혔다.
- 하지만 에너지 저장 제품과 배기가스 규제 크레딧 판매로 4분기 전체 매출은 2% 증가했다고 밝혔다.
- 테슬라의 핵심 사업인 전기차는 수요 약화와 중국 경쟁사와의 가격 전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. 이를 극복하기 위해 테슬라 CFO Vaibhav Taneja는 올해 상반기 새로운 저가 모델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
- 또한 테슬라는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으로 미래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. 작년 10월, 테슬라는 2인승 자율주행차와 사이버캡과 20인승 자율주행버스인 로보밴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였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Honda, Nissan Sales Slid in 2024, Bolstering Case for Tie-Up 혼다와 닛산, 2024년 판매량 감소

- 혼다와 닛산의 2024년 글로벌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이에 따라 두 회사가 힘을 합쳐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.
- 혼다는 작년 판매량이 4.6% 감소한 380만대, 생산량은 11% 감소한 370만대를 기록했다. 닛산은 작년 판매량이 0.8% 감소한 330만대, 생산량은 8.75% 감소한 310만대를 기록했다. 이러한 데이터는 혼다가 닛산을 합병해 규모를 키우려는 이유를 보여준다.
- 작년 12월, 혼다, 닛산, 미쓰비시는 세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이 경우 새로운 통합 회사는 매년 약 80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작년 1천80만대를 판매한 도요타 자동차나 900만대를 판매한 폭스바겐을 거의 따라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WSJ: H&M Sales Disappoint on Black Friday Timing H&M, 연휴 시즌 판매 부진

- H&M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포함된 작년 4분기 매출 증가율이 예상치인 4%에 못 미치는 3%를 기록해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.
- 하지만 RBC Capital Markets의 분석가 Richard Chamberlain은 “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한 연휴 시즌 일부가 올해 1분기로 밀리면서 판매가 부진한 것처럼 보였다. 실제로는 매출이 충분히 증가했을 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
- H&M은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 새로운 제품군과 마케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.
- 오늘 목요일, H&M은 매장 네트워크 최적화와 공급망 개선을 위해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. 또한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.

WSJ 기사

WSJ: Levi Strauss Warns of Outlook on Short-Lived Return to Wholesale Growth Levi, 도매 성장률 회복

- Levi Strauss가 2년 만에 도매 성장률이 회복세로 돌아섰다. 하지만 올해 매출이 1~2%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. 주식 조정 수익도 1.20~1.25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혔다.
- Levi 재무 책임자 Harmit Singh는 “미국 소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, 도매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. 우리는 도매 사업을 성장시키고 싶다.”라고 말했다.
- 작년 4분기 Levi의 3개월간 순이익은 1억8천3백만 달러를 기록했다. 2023년 1억2천7백만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다. 매출도 12% 증가한 18억4천만 달러를 기록해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17억2천만 달러를 상회했었다.

WSJ 기사

[보고서]

美연준 파월 "추가 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...美 경제 강해"
"트럼프 경제 정책, 아직 알 수 없어...상황 면밀히 주시"
트럼프 금리인하 압박엔 "논평 안할 것...묵묵히 본연 임무 수행"

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의장은 29일(현지시간) 미국의 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.

고율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정책의 영향에 대해선 정책이 구체화하기 전까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